

영유아 문화공연 공모 선정 잇따라

문체부·전북도 주관... 익산시, 동동동 문화놀이터 아동뮤지컬 1편·시군 영유아 순회공연 일환 인형극 2편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가 주관하는 영유아 문화 공연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 '동동동 문화놀이터'에서 주관하는 아동뮤지컬 공연 1편과 전북도 '시·군 영유아 순회 공연'의 일환인 영유아 인형극 2편 등 총 3편을 공모를 통해 확보했다.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가 주관하는 영유아 문화 공연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들은 익산 육아종합지원센터 더함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영유아 문화감수성 향상 및 예술적 표현력 향상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연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문화적 혜택이 적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에서 기획한 공연 공모 사업에 신청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무민'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영유아 클래식극이 선정돼 300

여명의 영유아 가족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즐겁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선사해 영유아의 자기주도성 및 성취감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더불어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공연 지원 사업 또한 올해도 최종 선정돼 도내에 있는 인형극 극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

고 편식지도 및 미디어 이용 지도와 같은 교육적인 소재의 인형극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공연은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과 전북도에서 공연의 질과 운영 절차 등이 검증돼 영유아의 흥미와 발달에 맞는 공연이 제공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연은 지역의 가정과 어린이집 영유아들

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영유아들을 위한 공연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명품아동친화도시로서 영유아들을 위한 가장 적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영유아들이 참여하여 즐기는 문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인천 기자

중기 맞춤형 지원 참여기업 모집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오는 30일까지 '군산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지원 사업'에 참여할 관내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은 고용역량, 매출, 기술력 등이 우수한 관내 12개 기업에게 기업당 최대 1700만원, 총 1억 4000만원의 기업성장지원금을 지원된다.

기업의 질적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장이 있으며 종사자 10인 이상, 올해 3명 이상 신규채용 또는 예정인 기업이다.

시는 사전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점검 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12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제품개발, 마케팅,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기업 당 최대 1700만원의 기업성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남균 센터장은 "앞으로도 군산시는 고용노동부, (사)캡티브중합기술원과 적극 협력하여 군산 내 고용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금융권 취약 채무자 보호 '앞장'

과중채무·신용문제 지원 운영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금융권 취약 채무자보호를 위해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지원에 앞장선다.

시에 따르면 서민금융지원협의체(8개 기관)를 구성한 이후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 자영업자 자금대출 상담의 원스톱 서비스로 4월말 기준 총 593건(종합상담 248건, 미소금융 188건, 채무조정 157건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에 대한 서민 금융지원 제도를 현수막 설치로 적극 홍보하고 시 지역경제과 내에 안내창구를 운영한다.

또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과중채무나 채권추심에 대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되어 채무부담도 덜어준다.

특히, 지난 1월에 개소한 군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채권추심에 고통 받는 시민에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과다부채로 고통 받는 저소득 금융 소외계층이 다양한 제도적 서비스를 충분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점적인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현장 연시회 호응

군산시가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재배 현장 연시회로 참석한 벼 생산 농가 및 들녘경영체 관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따른 생력재배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드론을 활용한 벼 답수산파 직파재배 실증시험이 시범 단지 중심으로 처음 추진했다고 밝혔다.

드론이용 직파재배는 드론 대중화에 맞추어 눈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가능한 농법으로 벼 직파재배 농가위 노동력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종자 철분 코팅방식 도입, 논 레이저 정밀균형, 시비방법 개선, 효과적 잡초방제 등의 실증기술을 적극 발굴·확산해 농업경영의 생산성

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문현조 기술보급과장은 "지난해 35ha였던 벼 직파재배를 드론을 이용한 과중, 시비, 제조과정 등 벼농사 전 과정에 적용하여 답수산파 방식의 생력화 기술을 농가에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 하겠다"고 밝혔다.

드론 답수산파 재배기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454-5301~4)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황등중 일대 주민불편 해소

익산시, 학교 앞 도로 인도개설 추진 2022년 완료 예정

도로가 좁고 인도가 없어 통행에 큰 불편을 겪던 황등면 황등중학교 일대의 주민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익산시(시장 정현을)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황등삼거리~성일고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연장 350m)의 도로폭을 7m에서 12m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이번 1회 추경(5월)에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실시 설계에 착수하고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황등중학교 앞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소로)로 개설했으나 도로폭이 좁고 인도가 없어 그동안 주

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실시된 황등면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인도개설에 대해 건의하자 정현을 시장이 이를 적극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도로를 확장해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이 같이 추진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개설로 인도가 없어 고통을 겪고 있던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 일대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LX 공사 익산지사 31일 사무실 확대 이전

송학동 이리송학초 맞은편으로... 내달 1일부터 업무 시작

한국국토정보공사(전 대한지적공사) 익산지사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사무실을 이전한다.

익산지사는 오는 31일 기존 남중동 사옥에서 송학동 이리송학초등학교 맞은편(고현로 1)으로 사무실을 확대 이전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중동 남성맨션 뒤편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는 1990년 5월 신축된 지하층 지상층 건물에서 운영

돼 왔지만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높은 계단과 좁은 주차장, 비좁은 고객응대 공간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이전하게 될 신사옥은 넓은 주차공간을 갖춘 3층 건물로 1층에는 고객응대실이 마련되고 지역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새 사옥에서도 종합민원 및 합영출장소 내 지적측량접수 창구는 그대로 운영된다. /익산=정인천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확대해야"

정현을 익산시장이 20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지역의 목은 현안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고 있다며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시장은 "여름철 가장 시원한 곳이 바로 백화점이나 점포, 은행 등인데 아무래도 영업장이다 보니 아무리 더워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없다"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관내 유관기관과 MOU체결 및 협의를 통해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익산시는 폭염대비 그늘막, 버스정류장의 열을 설치 등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정 시장은 "이번 원광대 앞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등 우리시의 목은 현

안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어 마음이 가볍다"며 "기획은 간부들이 할지 몰라도 실제 움직이며 뛰어다니는 것은 직원들이고 이 모든 성과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고생한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덧붙여 "이제 전임시장부터 이어져 오던 목은 현안들은 거의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모현 우남아파트 문제만 남아있는 듯하다"며 "이번 주 열리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라며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라도 목은 과제 해결에 전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